

담배잎에서 단백질추출

남은 담배잎은 발암물질 감소효과

美켄터키大 식물병리학 교수인 슈·윈박사팀은 담배잎에서 달걀흰자나 치즈·우유보다 인체에 잘 흡수되는 단백질시험 추출에 성공, 관심을 끌고있다. 이 단백질은 기존의 식품에 비해 필수아미노산이 골고루 섞여있어 훌륭한 식품이 될수있으며 단백질을 추출한후 남은 담배잎으로 만든 담배를 피울경우 질소산화물·시안화물은 물론 발암물질의 발생량을 크게 줄일수있어 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主婦가 「송진齒痛藥」

美발명특허 따내

清州市 崔榮子씨, 民間요법응용 개가

清州市 內德2동 롯데아파트B동308호 崔榮子씨(54)는 57년1월 朴해출씨(54·국교교사)와 결혼하면서부터 남편朴씨의 고질적인 치통으로 고민하게 된 것이 송진치통약 발명의 동기가 됐다. 처음에는 崔씨의 권유로 소금치료를 해서 약간의 효과를 얻자 崔씨는 송진이 충치에 더욱 좋다는 민간요법에 착안, 소금과 송진 두가지를 결합, 약효가 상승작용을 일으킨것. 崔씨가 만든 송진치통약은 소나무등걸이나 뿌리에서 캐낸 송진에 소금을 넣어 加熱한뒤 잘 섞어 말려 잘게 빻아 입에물리는 단순요법. 아픈이에 몇번물렀다가 뱉어내는 요법으로 통증과 염증이 씻은듯이 가신다고. 한번 치료하면 6개월여동안은 이가 썩지도 않는다고. 崔씨는 87년 이 약을 대중화시켜 전국민의 치료를 생각했으나 치약메이커에서 비방을 가로채려는 난관에 봉착, 88년11월 서울의 모특허사무소로 통해 미국에다 특허출원, 지난 4월 24일 미국특허청에서 「송진치통약」의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특허제목은 「구강질환치료법」 미국에 이어

台灣등지와 국내특허도 받아 국민들의 구강보전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고있다. (중앙일보)

沿近海보호, 制度的장치강구

人力장비補强·所管業務 명확해야

지난 7월15일 仁川앞바다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는 어민들의 피해보상요구등 집단민원이 생기고 최근 잦은 대형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 경향은 정부의 연근해보호종합대책을 촉구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총리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업무분담을 명확히하는 한편 制度整備, 항만장비의 現代化, 해양오염방제 전략수립등 事前예방에 重点을 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류와 관련된 海洋汚染의 사후방제는 海洋警察隊서(항만청·수산청은 협조) ▲사전예방을 위한 制度수립및 시설확충은 海運港灣廳(환경처는 해양오염전반에 관한 기본정책만 수립)이 전담케된다. 특히 유조선 충돌사고는 88년이후 크게 증가하여 88년 4件, 89년 7件, 90년 7월현재 11件的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환경영향評價制

法規拘束力있게 정비

환경영향평가제는 환경파괴를 극소화하기위한 법규인데도 법적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요식행위로 걸치레격이 되어있어 이의 개정이 요청된다. 대규모개발사업이나 심지어 자연공원내의 대형시설물까지 발생이 난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구색을 맞추는 식의 환경영향평가제도라면 있으나마나다. 하루속히 관계법규를 정비하여 국토보존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해야한다. (애독자)